

명품 테이블 세터...‘강한 2번’ 이명기

글러온 복덩이 KIA ‘2번 고민’ 해소

무서운 집중력으로 연일 출루 행진

타율 팀내 3위...득점보다 타점 많아

부지런히 밥상을 차리고 직접 해결사로서도 나서는 KIA 타이거즈의 ‘강한 2번 타자’ 이명기(사진)다.

지난해 KIA의 고민 중 하나는 테이블 세터였다. 특히 ‘강한 2번’을 선호하는 김기태 감독의 성향과 달리 목지하게 역할을 해줄 선수가 마땅치 않으면서 2번은 변동 많은 자리였다. 서동욱, 이호신, 나지완, 이진영, 강한을, 오준혁, 브렛 필, 노수광, 김호영 등이 2번 타자로 나서 매 경기 새로운 테이블 세터가 구성되곤 했다.

올 시즌은 상황이 다르다. 빠르고, 강한 테이블 세터가 KIA 타선의 전면에 서고 있다.

톱타자 버나디나가 초반 부진을 털어내고 필필 날고 있는 가운데, 이적생 이명기가 ‘복덩이’가 되어 버나디나와 함께 강력한 테이블 세터를 구성하고 있다.

이명기는 0.340의 타율을 찍으며 12일 현재 ‘작은 거인’ 김선빈(0.366), ‘4번타자’ 최형우(0.341)에 이어 팀 내 타율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프로야구 전체 7위이기도 하다.

지난 11일까지 최근 10경기에서는 44타수 19안타로 무려 0.432의 타율을 찍었다. 이 중 6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9일 넥센 홈경기에서는 3안타, 4일 삼성 원정에서는 5안타를 한 번에 쓸어 담는 무서운 집중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난 2일 삼성 원정에서만 유일하게 안타를 때리지 못했지만 볼넷을 하나 골라내며 출루 행진은 이었다.

올 시즌 이명기는 1번(21타수 5안타), 6번(2타수 무안타), 7번(10타수 1안타), 9번(4타수 무안타) 타자로도 나섰다.

하지만 2번 타자로 가장 많은 166타수를 소화했고, 성적도 0.380의 타율과 25타점으로 가장 좋다. 올 시즌 기록한 홈런 3개도 모두 2번 자리에서 기록한 것이다.

이명기의 기록을 보면 득점(25)보다 타점(31)이 더 많다. 삼진(28)에 비해 볼넷(9) 갯수도 적은 편이다. 기록으로 보면 득점이 많고, 눈아구에 집중하는 전형적인 2번 타자는 아니다. 하지만 득점권 타율 0.400을 기록하는 등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강한 2번 타자’로 역할을 하며 까다로운 타선을 구축하고 있다.

이명기는 자리에 맞게 우선 출루율에 신경 쓰겠다는 각오다.

이명기는 “테이블 세터라는 자리에 맞게 출루율이 가장 신경 쓰인다.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5월 중반 성적이 좋지 못했는데 타격감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 잘 맞은 게 잡히기도 하는 등 경기가 잘 안 풀렸다. 첫 타석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편하게 경기를 하면서 한 번에 몰아치기도 한다”며 “상대 투수에 따라서 빠르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공격 방식을 다르게 한다. 제구가 좋지 않은 투수의 경우 많이 보고 기다리려고 하는 편이다. 제구가 좋은 투수에겐 볼카운트가 몰리면 불리해지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한다. 그동안 확고한 1군 선수는 아니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번트 안타·도루, 김현수 6경기 연속 출전

‘추추트레인’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빠른 발을 앞세워 팀 승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추신수는 1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의 미닛 메이더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2017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방문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득점을 올린 타율 0.255(196타수 50안타)를 유지했다.

전날 맥스 셔저의 시속 158km 강속구를 때려 홈런을 터뜨리기도 했던 추신수는 이날 타격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1회 1루수 직선타, 3회 2루수 병살타, 6회 좌익수 직선타로 몰려났다.

대신 추신수에게는 감이 안 좋은 날 경기를 풀어갈 센스가 있었다.

추신수는 팀이 3-1로 앞선 8회 초 무사 1루에서 좌완 투니 십의 초구에 기습번트를 시도했다. 투수와 1루수, 2루수 사이에 절묘하게 떨어진 타구에 추신수는 1루를 넘겨 넘겨 밟았다.

번트로 내야안타를 만든 추신수는 엘비

스 앤드루스가 삼진 당할 때 2루 주자 달라이노 드실스와 더블스틸을 감행했다.

2루심은 처음에 추신수의 아웃을 선언했지만, 쉐린지 끝에 판정이 번복됐다.

이번 시즌 6번째 도루에 성공한 추신수는 2014년 텍사스와 계약 이후 시즌 최다 도루 타이(2016년)를 이뤘다.

추신수의 통산 시즌 최다도루는 2010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달성한 22개다. 이후 노마 마지라가 2사 후 3점 홈런을 터트리면서 추신수는 득점까지 추가했다.

텍사스는 지구 라이벌 휴스턴에 6-1로 승리하며 4연승을 달렸다.

조금씩 출전 기회를 늘려가며 반등을 준비하는 김현수(29·볼티모어 오리올스)도 안타 생산을 재개했다.

김현수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개런티드 레이트 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방문경기에 교체 출전해 3타수 1안타 1타점을 올렸다. 타율은 0.253(75타수 19안타)으로 소폭 올랐다.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던 김현수는 3회 말 수비에서 크리스 데이비스가 빠지면서 좌익수로 그라운드를 밟는 데 성공했다. 최근 6경기 연속 출전이다. 볼티모어는 7-10으로 5연패에 빠졌다. /연합뉴스

오승환 올해는 올스타전 무대 설까

美 메이저리그 NL 세이브 3위... 남은 기간 성적에 달려

미국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끝판왕’ 오승환이 올해는 올스타전에 출전할 수 있을까.

오승환은 12일(한국시간) 현재 내셔널 리그(NL) 최다 세이브 부문에서 3위(15세이브)에 자리했다.

이 부문 1위는 23세이브를 수확한 그레그 홀랜드(콜로라도 로키스)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소방수 페르난도 로드리가 16세이브로 오승환보다 한 계단 높은 2위에 있으나 평균자책점이 5.56이다.

1승 2패 평균자책점 3.10을 올린 오승환은 벤치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즌 시작부터 카디널스의 뒷문을 비교적 큰 탈 없이 지켜왔다.

오승환과 올스타 출전을 다룬 NL의 마

무리 후보로는 올랜도를 필두로 시카고 컵스의 웨이드 데이비스(2승 13세이브, 평균자책점 1.21), 신시내티 레즈의 라이젤 이글레시아스(2승 1패 12세이브, 평균자책점 1.69),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랜디 얀선(4승 11세이브, 평균자책점 1.03) 등이 있다.

객관적인 지표에서 오승환의 성적이 밀리는 게 사실이지만 올스타전 직전까지 강력한 인상을 남긴다면 올스타 출전도 기대해볼 만하다.

난전 양상인 NL 중부지구에서 세인트루이스는 3위를 달리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불펜이 평균자책점(4.80) 순위에서 NL 15개 팀 중 13위로 처진 점을 고려하면 동료의 덕을 거의 보지 못한 오승환이 15세이브를 건진 게 어찌 보면 용하다. 경쟁자

들 소속팀은 구원진 평균자책점 순위 상위권에 포진했다.

지난해 월드시리즈에서 오승환 시카고 컵스의 조 매든 감독이 올해 NL 올스타투수 선발을 좌우한다.

작년 시즌 중반 카디널스의 마무리를 꿰찬 오승환은 아깝게 올스타에 뽑히지 못했다. 뒤늦은 출발로 세이브 수가 경쟁자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당시 오승환의 탈락을 두고 NL 올스타를 지휘한 테리 콜린스 뉴욕 매츠 감독이 단순히 세이브 성적만을 놓고 순서대로 불펜 투수를 구성했다는 미국 언론의 비판이 나왔다.

한편 이번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은 7월 12일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말린스 파크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박지성, 호나이지뉴와 대결

30일 맨유 vs 바르샤 레전드 매치 출전

박지성(36·은퇴)이 또 한 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빈다. 이번엔 호나이지뉴, 다비츠 등 FC바르셀로나 레전드들과 함께 뛰는 것이다.

바르셀로나는 12일(이상 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월 30일 바르셀로나 캄프 누에서 바르셀로나 레전드와 맨유 레전드가 맞붙는 자선경기를 개최한다”라며 “이 경기엔 양 팀에서 전성기를 누렸던 과거의 스타들이 총출동한다”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선수 명단엔 박지성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박지성은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드와이트 요크, 미카엘 실베스트르, 에스퍼 블롬퀴스트, 킨턴 포츠, 카렐 포보르스키와 함께 맨유 레전드 팀으로 뒀다.

맨유 레전드 팀을 이끌 감독과 나며

지 선수들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맞서는 바르셀로나 레전드팀은 호세 마리아 바케로 감독이 이끈다. 호나이지뉴를 비롯해 다비츠, 시망 사브로자, 후안 카를로스, 게오르게 포페스쿠, 미겔 앙헬 나달, 줄리아누 벨레치 등이 출전한다.

박지성은 지난 5일 잉글랜드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유 자선경기에서 옛 동료들과 발을 맞추며 축구 팬들의 환수를 자극했다.

그리고 한 달도 안돼 다시 맨유 유니폼을 꺼내 입는다.

한편 맨유 레전드와 바르셀로나 레전드 간의 이벤트 매치는 9월 2일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박지성의 해당 경기 출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몸값’ 1위 축구선수 네이마르 2767억원

호날두 1428억 11위...손흥민 780억 50위

유럽 프로축구 5개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축구선수 가운데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는 네이마르(25·바르셀로나)로 집계됐다. 손흥민(24)은 78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아 아시아 선수로는 가장 높은 50위에 올랐다.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국제스포츠츠 연구센터(CIES)는 13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5개 주요 리그 선수 110명을 대상으로 ‘이적료 가치’를 집계해 공개했다.

브라질 출신 공격수 네이마르의 가치는 무려 2억1070만 유로(약 2767억원)에 달했다. 네이마르는 선수와 팀의 기량은 물론 연령, 포지션 등을 종합적으로 집계한 이번 조사에서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테레 알리(21)와 해리 케인(23)이 각각 1억5510만 유로(1970억원), 1억5360만 유로(1951억원)로 2~3위를 차지했다.

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29·1억5170만 유로)는 4위를 기록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앙투안 그리즈만(26·1억5030만 유로), FC바르셀로나의 루이스 수아레스(30·1억4080만 유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폴 포그바(24·1억3043만 유로)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포브스 조사에서 전 세계 최고 수입 스포츠 스타로 꼽힌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는 1억1240만 유로(1428억원)로 11위에 그쳤다.

토트넘의 손흥민은 6150만 유로(약 780억원)로 50위에 랭크됐다. 손흥민은 지난 1월 발표된 명단에서는 4480만 유로(약 570억원)로 69위를 차지했지만, 이번 시즌에 보여준 눈부신 활약을 앞세워 무려 19계단이나 상승했다.

최근 맨유의 러브콜을 받는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 알바로 모라타(24·6100만 유로)보다도 한 계단 높은 것으로, 아시아 선수 가운데 최고 순위다. /연합뉴스

이란, 우즈베크 꺾고 월드컵 본선행 확정

이란이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이란은 13일 새벽(한국시간) 이란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우즈베키스탄과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이란은 8경기에서 6승2무(승점 20점)로 남은 두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러시아 월드컵 본선 티켓이 주어지는 최소 2위를 확정, 개최국 러시아와 남미 1위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뤘다. 아울러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이번 경기에서 이란이 일방적인 경기력으로 완승을 했다.

이란은 전반 23분 아즈문이 골을 넣었다. 그는 역습기회에서 알리레자 자한바흐쉬의 스투파스를 받아 골키퍼와 일대일 기회를 만든 뒤 우르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후반 3분엔 메호디 타레미가 상대 반칙을 끌어내 페널티킥 기회를 잡았지만, 키커로 나선 마수드 쇼자에이가 실축해 추가 골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이란은 수비를 강화하며 시간을 끌었고, 후반 43분 타레미가 추가골로 췌기를 박았다. /연합뉴스



“우리 러 월드컵 나가요” 이란 축구대표팀이 13일 이란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우즈베키스탄전 2-0 승리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